

후백제 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차인국*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후백제 관련 유적 검토 | 참고문헌 |
| 3. 유적 해석의 상반된 시각 | <Abstract> |
| 4. 후백제 고고학의 과제 | |

국문초록

후백제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최소 37년 이상 존속했던 국가였다. 국가적 시설인 도성, 산성, 왕릉,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물질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인데, 아직 그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최근 후백제의 유적으로 비정되는 유적에 대한 조사성과가 축적되면서, 후백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언급되는 유적을 도성, 산성, 생산유적, 사찰, 건물지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다음으로 후백제 고고학의 주요 쟁점인 전주 동고산성, 광양 마로산성, 장수 침령산성, 함미산성,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전주성(全州城)' 명 기와 등을 살펴보았다.

후백제 고고학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후백제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표상적 물질이 부재하다는 점인데, 과거 지배층의 전유물인 기와를 대상으로 후백제 고유의 유물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全州城', '王', '國' 등의 기와는 9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되었는데, 공반된 문양과 단어가 지닌 의미를 더하여 후백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조사1팀장, E-mail: shyboy627@naver.com

제의 표상적 유물로 판단하였다. 후백제 왕실 비보사찰로 비정되는 완주 봉림사지의 나말여초기 기와 역시 후백제와 관련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백제의 표상적 유물을 종합하여 전주 인근에서 후백제의 중심권역을 추정해보고 그 기능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후백제, 고고학, 명문와, 전주성(全州城), 왕(王), 국(國)

1.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전 전주에는 후백제 왕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견훤이 백제 계승을 표방하며 건국한 후백제는 삼분(三分)된 한반도의 패권을 노리는 강력한 국가였다. 멸망 전까지 고대 국가로서 도성, 산성, 왕릉, 종교와 관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물질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다만 급작스럽게 찾아온 멸망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후백제의 물질자료는 그 실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후백제가 37년이라는 매우 단기간 존속했기 때문에, 물질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다. 가령 중국 수(隋)나라는 39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제(文帝)가 시행한 과거제와 양제(煬帝)의 대운하 건설 등은 당나라 번성의 토대가 되었다(이도학 2020). 한 나라의 존속기간과 그들이 양성한 문화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백제의 고고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헌사 등 다른 학제에서는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되었으나, 고고학에서는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어려운 연구환경으로 인해 연구자의 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겠는데, 이보다 연구자들의 관심 부족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후백제의 표식적인 유구와 유물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다. 일찍이 동고산성이 후백제의 궁성으로 비정된 이후(전영래 1997), 동고산성 출토품이 후백제 유물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듯하다. 후백제 연구의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동고산성은 백제와 통일신라시대부터 운영되어, 후백제 유물의 추출과 그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대상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작업은 누락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에서는 후백제 고고학의 연구현황을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쟁점과 향

후 과제중 하나인 후백제의 표상적 유물을 살펴보았다.

2. 후백제 관련 유적 검토

고고학 연구대상에 있어 후백제는 다른 시대 혹은 나라에 비하면 후발주자 입에 틀림없다. 후백제학회가 2019년 8월에 창립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후백제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그보다 앞선 2015년 2월 ‘後백제연구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후백제연구회에서는 주기적인 학술발표회와 답사, 기초자료집과 학술지 발간을 목표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학술발굴조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주 후백제 도성벽 추정지인 오목대, 궁성 추정지인 중노송동 제일고 일대, 진안 도통리 요지, 완주 봉림사지, 장수 함미성 등의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후백제의 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곳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도성

도성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궁성과 관부 및 그 주위를 에워싼 성곽으로, 군사적인 목적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장소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전주는 통일신라시대 완산주가 설치되면서 중심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큰 변화 없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황인호 2014). 다만 후백제 도성의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후백제 도성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1943년에 간행된 『全州府史』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전주의 지형과 기록물, 풍수지리,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통해 새로운 도성구조가 제시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으나, 공통된 의견은 전주의 서북방 고토성 줄기를 중심으로 반대산을 가로질러 동쪽은 구룡의 자연성벽을 삼고 기린봉을 지나 동고산성에 이르고, 다시 서쪽은 발산을 지나 오목대와 전주천, 중화산을 연결하는 형태이다(최홍선 2020).

한편 후백제 궁성의 경우 동고산성, 동정리 일대, 고토성, 현 제일고등학교, 인봉리, 전라감영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성 및 궁성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진행된 조사를 소

개하고자 하며, 동고산성은 산성 부분에서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후백제 궁성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쪽에 남아있는 토축물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에 진행되었다. 이 독의 규모는 길이 180m, 폭 12m, 높이 5m정도이며, 후백제 궁성의 서벽일 가능성이 상정되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통일신라말~고려초 즉, 후백제의 유물로 볼 수 있는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독은 궁성과 관련이 없는 조선시대 제방층으로 확인되었다. 궁성지는 찾지 못하였으나, 후백제 유물과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국립전주박물관 2016).

다음은 『全州府史』 기록에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된 곳으로 오목대, 그리고 인접한 완산구 풍남동 3가 7-40번지 일대이다. 2015년 4월과 10월에 각각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오목대의 경우 1918년과 1938년 제작된 지적도와 지형도, 그리고 1950년대 전후의 항공사진에서도 성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오목대 동쪽 성벽은 1985년 기린로가 개설되면서 1/2정도 유실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3개의 트렌치 조사에서 길이 261m, 너비 8m, 높이 3~5m 규모의 토석혼축성벽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벽의 구조는 순천 해룡산성과 유사하며, 유물은 ‘大’, ‘官’명문와, 당초문암막새, 연화문 수막새 등의 기와류가 대부분이다(국립전주박물관 2016).

완산구 풍남동 3가 7-40번지 일대는 전주부사 기록에 후백제 도성 벽의 남서쪽에 해당되며, 그 위쪽은 후백제 내성으로 추정된 노송정 90-2번지가 위치한다. 4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후백제시기의 건물지 1기, 고려시대 석축대지 2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변형 ‘官’명문와, 집선문과 인물문이 시문된 기와류가 출토되었다(국립전주박물관 2017).

다음은 전주 인봉리 일대의 궁성 추정지중 한 곳으로 신산업지식융복합센터 건립부지이다. 정보진흥영상원의 남쪽 주차장과 정원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궁성 추정지의 남성벽과 서성벽이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성토층, 적석시설, 추정 해자시설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토기편, 기와편, 백자편 등이 있으며, 해자 바닥면에서 후백제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전상학 2021).

그 밖의 고고자료에는 전주부사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쌍사자가 새겨진 전돌이 있다. 이 전돌은 1926년 독립병원(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신라 말~고려 초에 해당되는 유물로 보고되었다. 사자문은 용맹을 상징하는 동물로 벽사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기에, 후백제의 정치적 색채

가 반영된 유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쌍사자문 전돌의 행방이 묘연하여 전주부사의 마지막에 제시된 사진을 제외하면 유물의 제작연대를 추정할 만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일부 사자문수막새가 제작되나, 형태적으로 상이하여 후백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1. 해자 잔존양상과 유물 출토상태(전상학 2021)

2) 산성

산성은 외부인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리적 요충지에 축조하는 시설물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군사적 기능과 함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성곽을 이용하여 조세수취와 역역 동원체제 구축 등 지방통치의 핵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후삼국시대에는 호족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다(김세중 2021).

후백제는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전쟁 관련 기사가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한다. 고대사회에서 전쟁과 성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후백제가 새롭게 산성을 축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축조된 산성 중에서 일부를 활용했을 것은 예상 가능하다. 이에 통일신라시대에 활용된 성곽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는데, 통일신라의 성곽은 축성재료로 돌이 사용된다. 호남지역에 축조된 성곽중에서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통일신라시대에 운영된 것으로 밝혀진 것은 <표 1>과 같다.

성곽은 주로 성벽과 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집수지, 수구,

건물지 등도 일부 확인되었다. 내부시설로는 다수의 기와류가 주를 이루며, ‘官’, ‘城’ 등과 함께 지역을 나타내는 명문도 일부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운영된 성곽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후삼국과 고려시대에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백제와 연관된 것으로 거론되는 산성은 전주 동고산성, 장수 침령산성과 함미성, 익산 오금산성, 저토성, 미륵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순천 해룡산성, 나주 자미산성, 광주 무진고성, 광양 마로산성 등이다.

한편 경북 상주시 장암리에는 견훤산성이 자리한다. 테피식 산성으로, 대체로 방형을 띠고 있다. 성벽은 지형에 따라 암벽을 이용하였고, 필요한 곳에만 축조하였다. 성의 4모서리에는 굽이지게 곡성을 쌓았는데, 동북쪽과 동남쪽으로 난 2곳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다. 성벽 둘레는 650m이고, 높이는 7~15m이며, 너비는 4~7m이다. 이 산성은 보은의 삼년산성(사적 제235호)과 쌓은 방법이 비슷하다(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이 외에도 많은 산성이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었는데, 완주 용계산성, 금산 백령산성, 진안 대불리 산성, 남원 장교리 산성, 덕치리 산성 등이 있다(곽장근 2018).

표 1. 호남지역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석축산성(김세중 2021, 필자 수정 후 편집)

연번	유적	유구	주요 유물
1	익산 미륵	성벽, 문지, 건물지, 집수지	‘金馬漭城’, ‘大寺’, ‘弥力寺’명문와
2	익산 오금	성벽, 문지, 석렬, 집수지	‘首府’명문와, 연화문수막새
3	익산 저토성	성벽	‘金馬漭城’명문와, 주름무늬병, 해무리굽청자
4	전주 서고	성벽	인화문토기편, 개, 배, 평기와
5	전주 동고	성벽, 문지, 집수지, 건물지	‘全州城’, ‘官’명문와, 당초문암막새, 평기와
6	정읍 고사부리	성벽, 문지, 집수지, 배수로, 건물지	‘本彼官’명문와, 인장과
7	진안 월계리	성벽, 문지, 수구	인장과, 평기와, 토기류, 철기류
8	진안 함미	성벽, 문지, 집수지	평기와, 토기, 삼죽기
9	임실 성미	성벽, 집수지	단경호, 대부완, 인장과, 줄무늬병
10	임실 월평리	성벽, 건물지	원문수막새, 평기와, 명문와
11	장수 침령	성벽, 문지, 집수지	고배, 단경호, 대부완, 개, 줄무늬병, 해무리굽청자, 평기와, 목기류, 철기류
12	장수 함미	성벽, 집수지	연화문수막새, 인장과, 개, 대부완, 편병, 인화문토기
13	장수 봉서리	성벽, 문지, 치성, 우물	인장과, 평기와, 암막새, 주름무늬병
14	남원 아막	성벽, 집수지, 도수로	유개장경호, 기대, 토제품
15	남원 교통	성벽, 집수지, 건물지	‘南原’, ‘官’명문와, 평기와, 청자, 목기
16	순창 함미	성벽, 집수지, 건물지	삼죽기, 평저호, 평기와

연번	유적	유구	주요 유물
17	순창 대모	성벽, 문지, 건물지, 도수로	수막새, 인화문토기, ‘官’, ‘官’명문와, 주름무늬병
18	장성 진원	성벽, 문지, 건물지	평기와, 호, 청자, 청동접시
19	광주 무진	성벽, 집수지, 건물지, 수구	연화문수막새, 서조문수막새, 귀면문암막새, ‘大官草’, ‘國城’, ‘京’명문와
20	화순 비봉	성벽, 문지, 치성, 집수지, 우물	‘官’명문와, 평기와
21	나주 자미	성벽, 문지, 건물지, 수구	‘新官草’, ‘半乃夫’명문와, 인화문토기, 해무리굽청자
22	무안 봉대	성벽, 치성	‘官’명문와, 평기와, 자배기, 완, 병
23	신안 대성	성벽, 문지, 치성, 건물지, 집수지	호, 고배, 평기와
24	곡성 설산	성벽, 문지, 건물지	대부완, 주름무늬병, 편병
25	곡성 당동리	성벽, 문지, 집수지, 건물지	‘官’, ‘主’명문와, 평기와
26	고흥 남양	성벽, 문지	‘官’명문와, 평기와, 석환
27	고흥 백치	성벽, 문지, 집수지	유공광구소호, 고배, 주름무늬병, 화쇠
28	순천 봉화	성벽, 건물지	‘沙坪官’, ‘會昌午年’, ‘官’, ‘城草’ 명문와, 인화문토기
29	순천 검단	성벽, 문지, 집수지, 건물지, 수구	직구호, 개배, 삼죽기, 인화문토기, 평기와
30	순천 해룡	성벽, 추정 토루	‘左官草’, ‘右官’, ‘官造’, ‘住’명문와, 평기와
31	광양 마로	성벽, 문지, 집수지, 건물지, 치성	‘馬老官’, ‘官年末’, ‘甲全官’ 명문와, 연화문수막새, 인화문토기, 호등, 초두

3) 생산유적

유물의 생산에는 원료 추출, 성형, 소성 등의 단계를 거친다. 지금까지 확인된 생산유적은 대부분 소성이 이루어지는 가마이다. 생산된 유물의 종류에 따라 토기, 기와, 청자, 동, 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토기

최근 전주에서 우아동 도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가마와 폐기장이 1기씩 확인되었다. 가마는 소성부와 연도부가 결실되고 연소부와 요전부만 남아 잔존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영암 구림리 가마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후백제의 유적으로 비정되었다.

연소부는 길이 1.2m, 너비 2.2m이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을 띤다. 아궁이와 연소실의 종단면은 외고내저형이며, 아궁이는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불턱은 높이 50cm 내외로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의 바깥쪽에는 배수로나 조성되었다. 폐기장은 배수로를 따라 경사면 아래

쪽에 위치하며, 완, 동이, 호, 병, 장군,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표면에 형성된 자연유의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영암 구림리 도요지와 비교되고 있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영암 구림리 도요지는 1987년부터 4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고, 가마 6기, 수혈 2기,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요전부~연도부까지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평면 장타원형을 띠는 지하식 단실요의 구조를 보인다.

연도부는 점토와 석재를 이용하여 연통을 만들었고, 소성실 바닥의 경사도는 20~25°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가마는 모두 불턱이 없으며, 3차 3호가마와 4차 1호 가마의 요전부 내부에서 활석을 이용한 암거형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광견호, 4면편병, 줄무늬병, 편구병, 대부완동이, 시루, 완 등이 출토되었는데, 줄무늬병과 동체의 종단면이 마름모꼴인 편구병을 통해 나말여초기로 편년되고 있다(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9).

보령 진죽리 요지는 가마 9기, 공방관련 시설, 폐기 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덧띠무늬병, 줄무늬병, 편구병 등이 출토되었다. 8세기 후반 이후부터 9세기에 걸쳐 도기가 생산된 요지로 보고되었다(한혜선 2017, 재인용).



그림 2. 전주 우아동 토기가마(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2) 청자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유적에서는 벽돌가마 1기, 진흙가마 2기가 조사되

었다. 벽돌가마는 진흙가마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길이는 43m로 추정된다. 고창 용계리 초기청자가마보다 길어 호남지역 최대 규모이다. 유물은 선해무리굽, 중국식해무리굽, 한국식해무리굽 완, 잔탁, 주자, 화형접시 등의 청자류와 갑발형, 발형, 원통형, 뚜껑, 받침 등의 갑발이 주를 이룬다. 중국 월주요와의 긴밀한 관련을 통해 10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고 있다(군산대학교박물관 2019).

후백제와 관련된 청자요지는 진안 도통리가 유일했으나, 2020년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에 대한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진흙가마 하층에서 벽돌가마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후 벽돌가마 - 진흙가마 - 진흙가마의 중층관계가 밝혀졌다. 이와 함께 건물지의 존재가 확인되어 더욱 주목된다(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1). 유물은 선해무리굽과 한국식해무리굽 완, 주자 등의 청자류와 갑발류, 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최소 10세기 후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그림 3.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군산대학교박물관 2019)

(3) 기와

아직 공식적으로 후백제와 관련된 기와 생산유적으로 보고된 곳은 없는 듯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나말여초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완주 제내리 신기 1호,

전주 원장동D, 전주 찰방 2호, 강진 현산리 등이 있다. 어골문, 종선문, 격자문이 주로 시문된 평기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찰방 2호 가마에서 연화문수막새 1점이 출토되었으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4) 제동

지금까지 경주 등지에서는 동을 생산하기 위한 정련 혹은 합금, 완제품을 만드는 공방 유적이 조사되었다.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에서는 제동로 2기, 대형 폐기장 등이 조사되었다. 기존과 다른광석에서 동을 1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제련 유적으로 보고되었다. 진안 대량리 유적은 국가차원에서 운영되었던 유적으로 9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5) 제철

장수 대적골 유적은 백두대간 남덕유산 서봉의 서쪽 계곡부에 입지하는데, 그 범위가 무려 1km에 이른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지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철로와 철재퇴적구가 확인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한 라지구와 마지구에서 건물지와 철재 솥을 만들던 용범 퇴적구가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기와편의 속성이 동고산성의 것과 유사하여 유적의 운영시기는 후백제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4) 사찰

후백제 불교미술품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진행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불교미술품이 존재하는 사찰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었는 데, 2015년 완주 봉림사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후백제 왕실사찰의 일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만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져 회랑형건물지를 비롯한 건물지와 부석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나, 명확한 성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유물은 기와, 청자, 분청사기,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는 지표에서 수습된 수막새편을 제외하면 모두 평기와이고, 선해무리굽청자완과 중국식해무리굽완도 확인되었다. 석조미술품과 함께 수습된 일부 유물은 후백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대학교박물관 2020).

익산 왕궁리오층석탑 하부에는 총 4개의 유구가 중첩되어있다. 석탑 내부 적심부와 기단부에서는 석탑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백제~

통일신라시대 와당이 발견되어, 석탑의 조성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백제계 요소가 결합된 통일신라 석탑의 사례가 없는 점과 유적 내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후백제와 연결되고 있다(전용호 2015). 오층석탑과 동시기로 추정되는 강당지에서는 ‘大官官寺’명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다.

장수 개안사지에서는 건물지, 축대, 배수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 주변에서 석탑과 석등의 부재로 탑이 복원된 석물이 있는데, 부재의 제작기법이나 석재의 특징은 후백제와 연결되고 있다.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귀면와, 평기와 등이 출토되었다(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0).

남원 실상사는 통일신라의 증각대사 홍척이 흥덕왕 3년(828)에 개창한 최초의 선종사찰로 기록상 숙종 6년(1680)에 중창되었다. 1996년 처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8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창건 당시의 중문지, 회랑지, 강당지, 익랑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고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 수철화상능가보월탑(보물 제 33호)외 다수의 중요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편운화상부도 탑신 정면에 새겨진 ‘정개(正開)’명은 910년을 나타내는 후백제의 연호로 주목된다.

5) 건물지

위에서 언급한 유적 이외에도 전주 반응리, 전라감영지, 군산 안흥II 등이 후백제와 연결되고 있다. 전라감영지에서는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우물, 부석시설 등이 조사되었고 ‘官’, ‘王’, ‘全州牧官’명문와를 포함하여 기와류와 청자,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전주 반응리 유적은 전주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청동기~조선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중 I 구역 남서쪽 사면부에서 다소 파괴되었지만 건물지 2동이 조사되었다. 건물의 잔존규모는 1호 정면 4칸, 측면 2칸, 2호 정면 2칸, 측면 1칸이며, 주간거리는 2.5~2.8m이다. 유물은 도기 소량과 다량의 평기와가 출토되었다. 선문, 곡선문 등이 시문되었고, ‘王’자 명문와와 인물형을 나타내는 복합문이 확인되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군산 안흥II유적은 군산 임피읍성의 서성벽이 축조된 지류의 하단부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지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건물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편과 초기청자, ‘屎山官草’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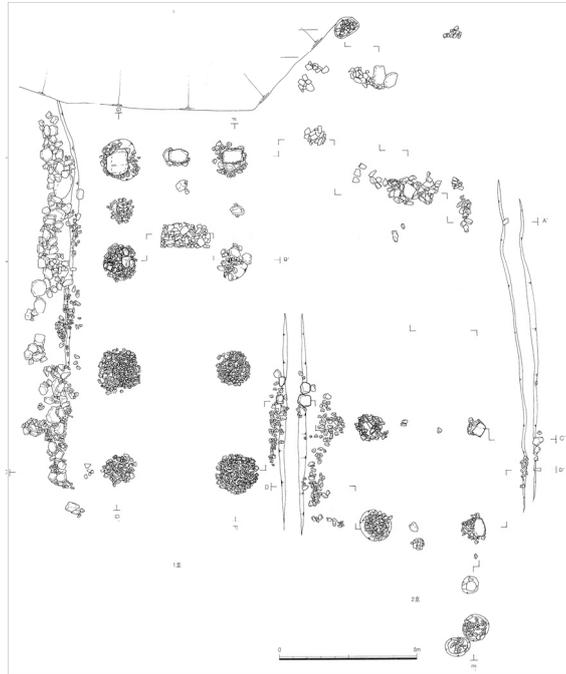


그림 4. 전주 반용리 유적 1,2호 건물지(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6) 기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유적이 후백제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견훤이 출생 및 성장기를 보낸 경상도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엄원식 2020). 견훤의 출생과 관련된 금하굴로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산 170-1에 위치한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굴에서 풍악소리와 빛이 새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메웠다는 소문이 전해진다. 또한 금하굴에서 마을 뒤편으로 약 500m 지점에는 견훤의 생가터로 알려진 곳이 있다.

견훤왕릉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위치하는데, 전주 우아동 무릉마을에는 견훤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릉이 있다. 후백제에는 수장(壽葬)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린봉 동쪽 기슭 하단부 무릉마을에 무릉을 견훤 생존에 축조된 무덤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지배층의 분묘유적은 전주 기린봉 동쪽 기슭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릉으로 추정되는 곳 주변에서 적석묘와 3단으로 석축된 대형 고분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동고산성과 기린봉 사이의 무릉마을의 절터는 후백제의 원찰로 추정되고 있다(곽장근 2018).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성곽, 건축, 생산, 분묘, 생활과 관련된 33개소의 유적이 보고되었다. 여기에 보고된 모든 유적이 후백제와 관련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후백제 연구에 필요한 작업으로, 추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적 해석의 상반된 시각

1) 전주 동고산성

현재까지 알려진 후백제의 유적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동고산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정면 22칸, 측면 4칸의 주건물지가 조사되었고, 여기에서 ‘全州城’이 새겨진 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발굴성과를 통해 주건물지 뿐만 아니라 동고산성이 후백제 왕궁으로 비정되었다(전영래 1992). 건물의 규모 및 후백제 건국 장소 지명의 기와를 통해 후백제의 유적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 견해 이후 후백제 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도성체계 및 왕궁의 위치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왕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동정리 일대(장영수 1994), 제일고등학교(김두규 2004), 인봉리 일대(곽장근 2013) 등의 시각이 있는데, 동고산성이 후백제 도성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후백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고산성 주건물지와 ‘全州城’명 기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후백제의 왕성은 평지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동고산성을 통일신라시대 전주의 치소성으로 보는 견해이다(서정석 2017).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동고산성을 해석하게 되는데, 예컨대 성벽의 초축과 개축을 각각 완산주 설치와 후백제 건국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보는 것이다.

‘全州城’명 기와와 주건물지를 포함한 성의 모든 시설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한다. 주건물지를 포함하여 성 내부에서 조사된 건물지는 석벽으로 축조되어 창고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1) 벽면 전체를 돌로 축조한 것은 아니고 하단부 일정 부분을 돌로 쌓은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석벽건물로 보고된 곳은 광주 남한산성, 양주 대모산성, 연기 운주산성, 아산 학성산성, 홍성 석성산성,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광양 마로산성 등이 있다.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군현성(郡縣城)으로서 조세(租稅)를 저장하는 창고로 해석하고 있다(서정석 2010). 석벽 건물지의 수는 부소산성 4기, 마로산성 2기를 제외하면 모두 1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동고산성에서 발견된 석벽건물의 수는 13기로 다른 산성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 서정석(2017)은 이를 주군현(州郡縣)의 영속 관계(領屬關係)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동고산성을 제외하면 9주 5소경으로 비정되는 치소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광주 남한산성에서 석벽 건물지는 50m가 넘는 길이와 20kg에 육박하는 기와가 사용되어 궁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장경호 2009), 동고산성과 간접적으로 비교 가능하다. 남한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석벽건물지는 1기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유적 역시 창고는 1기가 대부분이다.

부소산성의 경우 4기의 건물이 확인되었으나 ‘口’자 형태로 배치되었고, 마로산성의 Ⅱ-2호와 Ⅱ-3호 건물지는 나란히 위치한다. 주군현(州郡縣)에 따라 창고의 수 및 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건물이 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적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건물을 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동고산성에서 조사된 13기의 건물지 중 일부는 창고시설이 분명하나, 나머지는 다른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기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건물지의 경우 동고산성의 중앙에 위치하는 점과 ‘全州城’명 기와 등 상징적인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점을 감안하면 후백제 도성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2) ‘全州城’명 기와

동고산성 주건물지에서 출토된 ‘全州城’명 기와의 경우 후백제의 표지적 유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통일신라시대 완산주에서 전주로 개칭된 경덕왕 16년(757)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서정석 2017; 김세종 2021 외). ‘全州城’명 기와처럼 ‘지역명+城’, 다시 말해 ‘邑號+城’으로 구성된 산성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며, 모두 그 지역의

치소성이라는 이유에서다. ‘邑號+官’으로 구성된 기와에서 읍호는 백제 혹은 고구려의 지명이 새겨진 경우는 해공왕 12년(776)경에 유행한 지명의 복고 현상으로 이해한다(이영호 1990).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치소와 관련된 곳에서 확인되는 명문은 ‘官’명이다. ‘邑號+城’으로 구성된 명칭의 산성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邑號+城’명 기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주 월성에서 주로 출토된 ‘在城’명 기와, 강릉에서 출토된 ‘溟州城’명 기와가 전부로 극소수에 불과하다²⁾.

이중 在城’명 기와는 주로 월성에서 발견되어 월성의 별칭인 것으로 보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시기적으로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며, 城의 의미는 도성인 것이다. ‘溟州城’명 기와는 9주의 하나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출토된 것으로 하서주(河西州)가 경덕왕 16년(757)에 명주로 개칭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邑號+城’명 기와 모두 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와에 새겨진 문자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입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명문에 치중한 나머지, 문양이나 제작기법을 통한 기와의 세부적인 분석이 누락된 것이다. 수막새에서 명문 이외에 이렇다 할 특징이 부각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邑號+城’명 기와 간에 세부적인 비교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각각의 유물은 ‘在城’명, ‘溟州城’명 수막새는 상-하 방향으로 명문을 배치한 것을 제외하면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먼저 ‘在城’명 수막새는 자방부와 화판부 주연부로 구분하였고, 비교적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화판부에 반구형의 원을 11개 배치하고 외곽을 양각선으로 이었는데, 그 크기와 간격은 일정하지 못하다. ‘溟州城’명 수막새는 명문을 제외하면 다른 문양은 표현하지 않았고, 주연부의 너비가 넓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비해 ‘全州城’명 수막새는 자방부와 화판부, 주연부의 구분이 명확하며, 자방부에는 명문을 삼각형으로 배치하였다. 명문의 외곽으로는 원형의 돌선과 작은 반구형의 장식을 배치하였고, 화판부에는 8엽의 복엽연화문이 확인된다. 주연부는 돌선으로 구획하여 화판부와 높이차는 거의 없다.

이처럼 邑號+城’명이 각인된 세 종류의 기와는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들며,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지역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9주 5소경은 신라 왕경을 토대로 건설된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在城’명 수막새는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溟州城’명 기와

2) 광주 무진고성에서 확인된 ‘國城’ 명문와는 ‘國’=‘城’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는 통일신라 말기의 양길(梁吉) 혹은 궁예가 명주를 접수한 시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全州城’명은 암막새에도 동일한 명문이 확인되는데, 쌍무사와 함께 쌍봉황이 시문되어 왕권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금까지 확인된 ‘邑號+城’명 기와는 3종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지역에서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신라지역에서 ‘在城’명 기와가 먼저 사용되었고, 궁예가 명주를 공격한 891~894년에 ‘溟州城’명 기와 제작, 이후 견훤이 후백제 건국 이후 全州城’명 기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추후 다른 지역에서 제작된 기와의 제작시기를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5. ‘邑號+城’명 기와

3) 후백제 주요 산성과 출토유물

산성은 주로 전쟁 등의 상황에서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하는 구조물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수를 통해 비교적 수명이 긴 건축유구라 할 수 있다. 산성은 축조 집단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보축이나 개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이유는 입지상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신축보다 개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후백제의 영역에도 백제 혹은 통일신라시대에 다수의 성곽이 축조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후백제 역시 보축 및 개축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후백제와 관련된 산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최근 곽장근(2018)은 『산경표』에 후백제 동쪽 방어체계를 설명하였는데, 완주 용계산성, 금산 백령산성, 진안 대불리 산성, 환미산성, 합미산성, 장수 침령산성, 합미산성, 남원 성리산성, 장교리산성, 준향리산성, 노치산성, 덕치리산성 등이다. 대부분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문헌과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한 유물과 주민의 제보를 통해 후백제 산성을 비정하였는데, 성벽의 축조기법에서 공통된

특징이 확인된다. 그것은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그 모양은 옥수수 낱알 모양과 흡사한 것이다. 크기는 대체로 지면과 가까운 곳이 큰 편으로 바른층쌓기 하였으며, 안쪽은 작은 할석을 채웠다.

이후 장수 침령산성과 함미산성, 삼봉리산성 등의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성벽과 집수시설, 봉화 등이 확인되었다. 먼저 침령산성은 둘레 500m 내외에 불과하지만, 장수군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이다.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주로 집수시설의 성격이 파악되었고, 성벽의 축조기법이 일부 확인되었다. 집수시설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직경 12m로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호안석축은 정연하게 다듬어진 석재를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다. 삼국시대 기와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나말여초기의 토기, 기와, 철기, 목기 등이 대부분인데, 이중 단경호가 미륵사지 출토 ‘大中十二年’(858)명 대호의 공반품과 매우 유사한 점을 근거로 축조세력을 후백제로 보았다. 성벽은 세장하게 다듬은 사각추 형태의 석재를 바른층쌓기 하였는데, 일부 구간에는 다듬지 않은 석재가 사용되었다. 치의 경우 성벽 축조 이후 보축하였는데, 이러한 성벽 축조기법의 차이를 시간의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초축 이후 후백제에 의해 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명일 2018).

함미산성에서는 4기의 집수시설과 성벽의 축조기법이 확인되었다. 먼저 성벽은 상당부분 붕괴되었으나, 잔존높이는 최대 10m에 달한다. 성벽의 축조에는 견치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 하였다. 성벽의 중간까지는 들여쌓다가 그 위쪽은 약간씩 내어쌓기 하였다. 집수시설은 평면형태가 원형과 방형으로 구분되며, 이중 2호와 3호는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 유물과 함께 나말여초기 토기와 기와류가 출토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군산대학교 박물관 2019).



그림 6. 장수 침령산성과 함미산성 대표 유구

그러나 침령산성의 축조세력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성벽에 사

용된 성돌의 규모는 두께 15~30cm, 너비 20~60cm이고, 면석의 가로:세로의 비가 대체로 3:1 이상으로 세장하게 가공하여 축조한 것, 그리고 성벽 바깥쪽의 기저부 보축과 같은 흔적을 통해 신라산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서정석 2018). 성벽 축조기법이 편축식과 협축식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시기적인 차이가 아니라 구간(입지)에 따라 다른 축성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함미산성 역시 통일신라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기저부 보축에 대해서는 백제산성에서도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는데(심정보 2004), 견해차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유물에 대한 검토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침령산성 집수시설 내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물 이외에도 인화문이 시문된 뚜껑과 대부완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나,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유물이기 때문에 성벽의 축조 및 점유시기는 삼국, 통일신라, 후백제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함미산성 역시 2호 집수시설에서는 수막새와 평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 내면에는 승문통보 등이 확인되었고, 문양 역시 단판과 중판, 장판 타날판이 사용되어 선문과 격자문 등이 시문되었다. 결정적으로 백제 사비기 평기와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장와가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삼국·나말여초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언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집수시설의 축조세력을 후백제로 비정하였다. 집수시설 바닥면에서 나말여초기 대부완이 출토된 점을 근거로 하였는데, 층위와 공반 유물에 대한 해석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2호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수막새 9점의 경우 후백제로 편년되었고, 전주박물관에서 간행한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 도록에서도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의 유물로 소개되었다. 제작틀에서 문양을 찍어낸 다음 등기와를 접합하는 일반적인 수막새와는 약간 다른 구조를 보인다. 중앙에 원곽을 두르고 내부에 화문을 배치하거나 무문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일반 수막새와 비교하여 조잡한 편이며 완성도가 떨어진다. 접합기법이 주목되는데 성형이 끝난 수막새 위쪽으로 수키와를 덮어 씌운 다음 보토하는 방식이다. 수키와가 수막새의 주연부를 이루는 기법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나, 완성된 수막새의 바깥쪽에 수키와를 씌웠기 때문에 주연부의 바깥쪽으로 일정부분 돌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합기법은 평택 자미산성, 보령 천방유적, 광양 마로산성, 순창 대모산성, 일본의 국지성, 대재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 공산성 혹은 천방기법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는데, 주로 백제 말기로 편년되고 있다(최문환 2012). 두

기법은 수막새 주연부의 유무에 따른 분류이며, 제작 프로세스는 동일한 접합 기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산성의 축조 및 운영 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림 7. 천방기법 수막새

4) 광양 마로산성

광양 마로산성은 백제가 전남 동부지역을 영역화한 이후 광양만을 통제하고, 경남 서부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축성되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신라로 주인이 바뀌었고, 후삼국시대를 전후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견훤은 서남해 지역에서 방수군으로 공을 세우고 비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광양 마로산성을 위시한 지금의 전남 동부지역에 관련 유적이 언급되고 있다.

마로산성은 삼국시대 축성되어 지속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중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는 중국제 자기와 주름무늬병, 편병, ‘馬老官’명문와, 수막새 등이 있다. 이중 수막새는 문양의 종류가 31종으로 총 259점이 출토되었다. 당시 경주에서 유행한 막새와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지방의 호족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었다(최인선 2018).

그러나 수막새를 제외한 다른 유물에서는 백제, 통일신라로 편년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물 중에서 수막새 259점 모두가 후백제 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30종이 넘는 다양한 문양을 모두 하나의 집단으로 해석하는 과정 역시 무리가 따른다.

마로산성 수막새의 문양의 형식은 6가지로 구분되며, 단판, 중판, 복판, 세판 양식이 모두 확인된다. 연잎의 수는 4~8엽, 10~12엽, 14엽이 확인되며, 크기 역

시 다양하다. 접합기법 역시 백제 한성기 기와에서 보여지는 원통접합후 분할 기법, 수키와가 주연부를 이루는 수키와피복접합법, 성형이 끝난 막새 뒷면에 접합하는 기법, 앞서 언급한 성형이 끝난 수막새의 바깥쪽에 수키와를 덮어 씌우는 기법 등이 보인다. 이러한 점은 수막새의 제작집단과 계통이 상이하다는 유력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9세기대 유물과 공반되는 점과 기준에 보고되지 특이한 형식의 문양이라는 점을 통해 모두 후백제 기와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기와와 공반된 유물 중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막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형식분류를 통해 수막새의 제작시기를 살펴보고, 통시적으로 후백제 시기에 해당될 수 있는 수막새를 추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5)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용인 서리 유적의 발굴조사 이후 전축요(搏築窯)가 토축요(土築窯)보다 선행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따라서 우리나라에 청자가 도입되는 시기에 운영된 가마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자 도입시기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10세기경으로 정리된 듯하다(이종민 2003). 다만 여기에서도 10세기 초반설(곽장근 2013), 중반설(이종민 2017)로 구분되는데³⁾, 실제 연대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나말여초기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하나이다. 전자는 고려 건국 이전의 후백제이고, 후자는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고려를 그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자의 도입시기가 후백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의 중심에 바로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가 있다.

도통리 청자요지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초기청자가마 3기가 확인되었다. 길이 40m내외의 전축요 1기와 전축요를 파괴하고 들어선 43m 길이의 토축요 1기, 13m내외의 토축요 1기이다. 퇴적구릉에 대한 조사에서 선해무리굽, 중국식해무리굽, 한국식해무리굽 청자완이 확인되었다. 이중 이른 형식의 전축요와 선해무리굽 청자를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견훤이 오월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조공을 하였다는 기록,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삼국사기』 열전 견훤조의 기록과 함께 장보고가 이용했던 사당항로를 이용하여 오월로부터 청자 제작기술이 후백제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곽장근 2013).

그러나 후삼국 시기에는 30여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

3) 윤용이(1993)는 배천 원산리 요지의 명문자료를 바탕으로 10세기 후반설을 주장하였다.

동력이 수반되는 청자의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후삼국 시기에 청자가 생산되었다면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몇몇 가마는 요업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인지할만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전축요가 집중 분포하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이 고려 건국 이후에 비로소 중심지로 성장한 점은 초기청자개시 세력을 고려로 보는 정황이다. 대외적으로 오월과의 교류는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고, 결국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청자의 생산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인 10세기 중반으로 보는 시각이다(이종민 2017).

청자요업의 개시 여건을 내·외적으로 살펴보고 퇴적구릉의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분석으로 매우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중부지역에서 남쪽으로 청자생산이 확대되는 시기인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에 축조 및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역시 가마의 규모와 구조, 출토된 유물은 중서부지역의 전축요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최근 고창 반암리에 위치한 청자요지가 이슈화되었다. 시·발굴조사를 통해 전축요 상층에 길이 20m내외의 토축요, 다시 그 위로 길이 10m내외의 토축요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아파트형의 가마구조라는 점도 특징적이나 가장 하층에서 확인된 전축요는 일부만 조사되었는데, 길이는 33m 이상으로 대형의 전축요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 도통리 전축요와 함께 대형의 전축요가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향후 조사가 기대되는데, 여하튼 중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대형의 전축요가 존재하는 사실은 청자의 도입시기가 중서부지역과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4. 후백제 고고학의 과제

1) 후백제의 표상적 유물

앞서 후백제 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그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최근 고고학적으로 후백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그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자료의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후백제 고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성, 무덤, 종교와 관련된 시설 등 후백제와 관련된 유적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건물의 축조기법과 규모 등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후백제와 연결되는 문물 중에서 여타의 이견이 없는 것은 ‘正開’명 연호가 새겨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 부도가 아닌가 싶다. 후백제의 연호라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부도의 탑신에는 ‘실상산문개산조 홍척의 제자이며 안봉사를 창건한 편운화상의 부도, 정개십년 경오년(910년)에 세운다’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완주 봉림사에서 발견된 석조삼존불과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및 석등도 후백제 왕실에서 발원한 것으로 연구되었다(진정환 2019).

그러나 후백제의 고고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후백제의 유물 혹은 유구는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동안 후백제나 태봉이 아니라 나말여초기라는 용어가 유물의 편년에 주로 사용된 것도 이러한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백제의 유물을 가려낼 것인가? 후백제 고고학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표지적 유물이 밝혀져야 하고, 다음으로 이를 통해 다른 유물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유물은 재질상 토도, 금속, 옥석유리, 골각, 목죽초칠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토도는 토기, 도기, 자기, 기와, 옹기 등으로 세분된다. 이중 후백제의 표상적 유물을 추출하는데 유리한 것은 바로 기와이다. 토기나 자기, 옹기 등은 주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유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비례해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기와는 생활 유물보다 건물의 지붕을 덮는 건축부재로 사용된다.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제작과 소비환경이 생활유물과 상이하며 주로 지배층만 사용할 수 있는 유물인 것이다. 특히 마루와 처마를 장식하는 막새기와, 귀면와, 치미 등은 보다 상위 계층의 권력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백제의 유물로 ‘全州城’명 기와를 첫째로 꼽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 ‘全州城’명 기와

‘全州城’명 기와는 수막새, 암막새, 수키와, 암키와 등이 있다. 기와 편년에 대한 근거는 모두 역사적 사실에 기초로 하며, 유물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수막새에 새겨진 도상이 경주 월성과 월지 등에서 출토된 연꽃 모양과 비슷하다는 의견과 경기전 부속건물지 출토품과 비슷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강원중 2013). 형식학적으로 유사한 유물을 검토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도상적으로 유사한 점을 찾기 힘들뿐더러 일부 도상이 유사한 점으로 동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암막새에 새겨진 쌍봉황문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조문(鳥文)이 사용되나 세부 표현방식과 소용돌이 형태에서 비슷한 문양을 찾기 어렵고, 쌍무사문의 경우 동고산성에서 처음 확인된 형식이다. 이에 막새기와의 문양만으로 제작시기를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쌍무사문암막새에 접합된 등기와 중에는 제작시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쌍무사문암막새에 접합된 암키와는 문양이 정면으로 거의 지워졌지만, 종선에 조족문이 추가되었고, 그 아래는 횡선으로 구분한 다음 호상의 문양이 시문되었다. 하단부에는 종선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상단부의 문양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양의 형태보다 타날도구가 주목되는데, 바로 장판타날판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와의 문양을 시문하기 위한 도구인 타날판은 삼국시대 단판이 사용되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중판이 도입되며, 9세기 중반경 장판이 등장하게 되는데(이인숙 2004) 전북지역 역시 동일하다(차인국 2012). 완산주에서 전주로 개칭된 8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중판타날판이 사용되는 시기였기에 이 암키와는 9세기 중반이 상한으로 여겨지며, 후백제가 건국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차인국 2020b). 결국 암키와가 접합된 쌍무사문암막새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명문이 시문된 쌍봉황문암막새와 8엽연화문수막새 역시 후백제가 제작 주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후백제 왕조를 널리 알리며,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건국 이후에 제작한 표상적 유물이 바로 ‘全州城’명 기와인 것이다.

(2) ‘王’, ‘國’, ‘城’명 기와

후백제의 정당성을 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물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王’, ‘國’ 명 기와이다. 나라와 왕을 상징하는 만큼 고대사회에서 지극히 사용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역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유물이나 장소는 국가적 차원의 장소 혹은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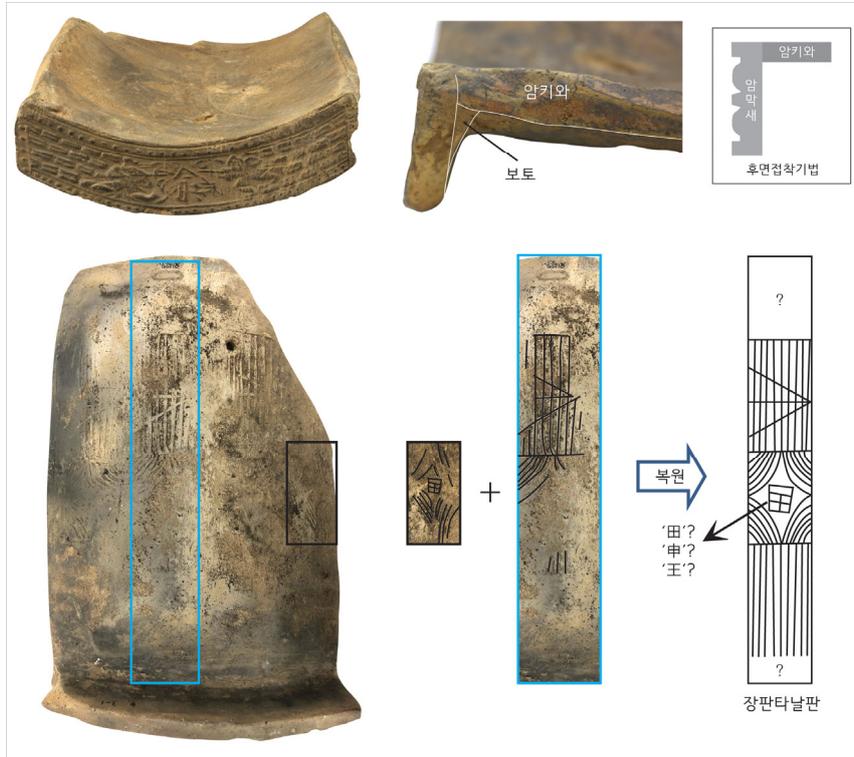


그림 8. '全州城'명 쌍무사문암막새(차인국 2020b)

먼저 '王'명 기와는 전주 동고산성, 완주 봉림사지, 전라감영지, 전주 반응리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테두리 안에 '王'자를 배치하였는데, 테두리의 형태와 공반 문양은 약간씩 상이하다. 먼저 전주 동고산성의 경우 격자문 사이에 방곽을 두르고 명문을 배치하였다. 전주 반응리와 전라감영지 출토품은 종선문 중간에 2중으로 방곽을 두르고 내부 방곽에 명문을 배치하였다. 방곽 사이는 능형의 형태를 2중으로 들렀다. 두 유적에서 출토된 것은 사실상 동일한 기와로 해도 무방할 만큼 거의 유사하며, 동일한 집단에 의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완주 봉림사지와 광양 마로산성의 경우 다른 글자 혹은 문양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삼각 형태의 테두리를 두르고 '王'자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國'자가 들어간 명문기와는 광주 무진고성에서 '太國'명과 '國城'명이 확인되었다. 전자는 중앙의 종선과 가지선으로 구성된 문양이 공반되었는데, 우측 가지선은 사방향으로 일률적이나 좌측은 사방향 외에 종선이 추가되었다. 후자는 3조의 사선이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어 능형문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며, '國'자와 '城'자가 한 글자씩 양각되었다.

이 외에도 무진고성에서는 다수의 ‘城’자 명문와가 출토되었는데, 공반 문양은 격자문, 변형어골문, 어골문, 종선문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모든 기와에서 타날판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장판타날판이 사용되었다는 방증으로 제작시기는 9세기 중반 이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진고성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명문기와는 후백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 ‘포’자명 기와

(3) 완주 봉림사지 기와

명문기와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후백제의 유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완주 봉림사지 출토기와이다. 봉림사지 후백제의 왕실에서 발원한 삼존석불이 제작되는 시기(진정환 2019), 그와 관련된 사찰이 조성되면서 다수의 건물이 축조되었고, 건물의 지붕은 기와가 덮여있었을 것이다.

발굴조사 결과 후백제 사찰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점유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후백제 멸망 이후 조선시대까지 사찰이 존속하였음이 드러났는데(전북대학교박물관 2019), 이러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후백제 전·후 시기에도 유적의 점유가 있었던 만큼, 봉림사지는 삼존석불이 조성되는 후백제 단계의 유물을 추출해야 하는데, 평기와의 편년을 통해 이 작업이 실시되었다.

봉림사지에서 후백제의 기와로 볼 수 있는 것은 2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문양은 8종으로 사격자문, 선문, 복합문 등이 시문되었다. 타날판은 장판이 사용된 가운데, 내면 하단부 깎기 혹은 무조정, 와도질 방향이 양쪽 외측 혹은 내·외측인 것이다⁴⁾. 이중 일부 기와는 전주 동고산성, 광양 마로산성, 전주 오목대 등과 비교하여 상호 후백제와 관련성을 상정하였다(차인국 2020a).

4) 이러한 기와는 봉림사지 창건 당시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1기에 해당되는 기와 역시 봉림사지 축조에 활용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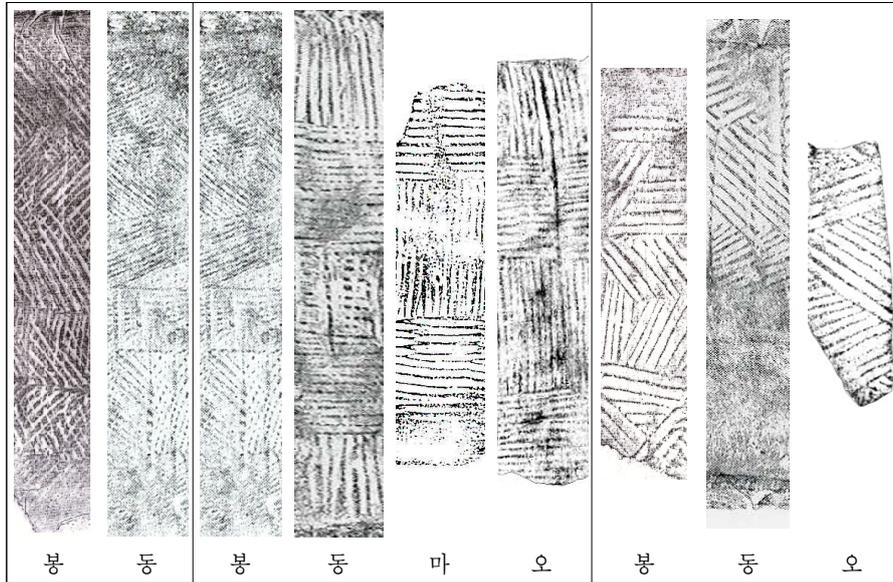


그림 10. 후백제 주요 유적의 기와 문양(봉: 봉림사지, 동: 동고산성, 마: 마로산성, 오: 오목대)

2) 후백제 중심권역

‘全州城’, ‘王’, ‘國’, ‘城’ 명문기와, 완주 봉림사지 2期の 기와는 후백제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래에서는 후백제 유물의 분포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全州城’명 기와가 출토된 동고산성 주건물지는 후백제의 피난성으로 비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적이 틀림없어 보인다. 만약 ‘全州城’명 기와가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다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2월 전주부성 북서벽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북서편 성벽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선시대 축조된 성벽 이외에도 적석시설,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 중에는 ‘全州城’명 기와와 유사한 수막새가 출토되었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1).

화판부와 연주문 일부만 남아있어 명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판의 형태는 ‘全州城’명 수막새와 동일하다. 전주부성 북서벽이 위치한 곳은 현재 전주 옥토주차장 부지로 전주천의 동쪽으로 인접한 곳이다. 지금까지 동고산성 주건물지에서만 출토된 ‘全州城’명 기와가 3km정도 이격된 곳에서 확인된 것이다. 조선시대 성벽을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全州城’명 기와가 출토된 곳이 후백제의 피난성의

왕궁이었는데, 평탄지에서 동일한 유물이 확인된 것은 어쩌면 인근에 후백제의 평지성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도 않은 유물 1점만으로 왕성을 비정하는 것은 심각한 비약이 아닐 수 없으나, 최소한 유물이 출토된 지점 주변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명문과 문양까지 동일한 기와가 전라감영지 전주 반응리유적에서 출토된 점이다. 두 유적은 전주천을 지나, 직선으로 7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감영지는 동고산성과 함께 지금까지 후백제의 평지성으로 비정되는 권역과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전주 반응리유적은 후백제의 중심권역으로 설정된 곳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다. 조사된 유구는 4칸, 측면 2칸과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 2기가 전부이며, 전주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리 유적 인근까지 후백제의 중심권역이라 말하기 힘들 것이다. 다만 후백제 중심권역인 전라감영지와 같은 ‘王’명 기와가 출토된 점은 후백제 왕실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곳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것이다. 남쪽에 위치한 서고산성과 함께 후백제 도성의 서쪽을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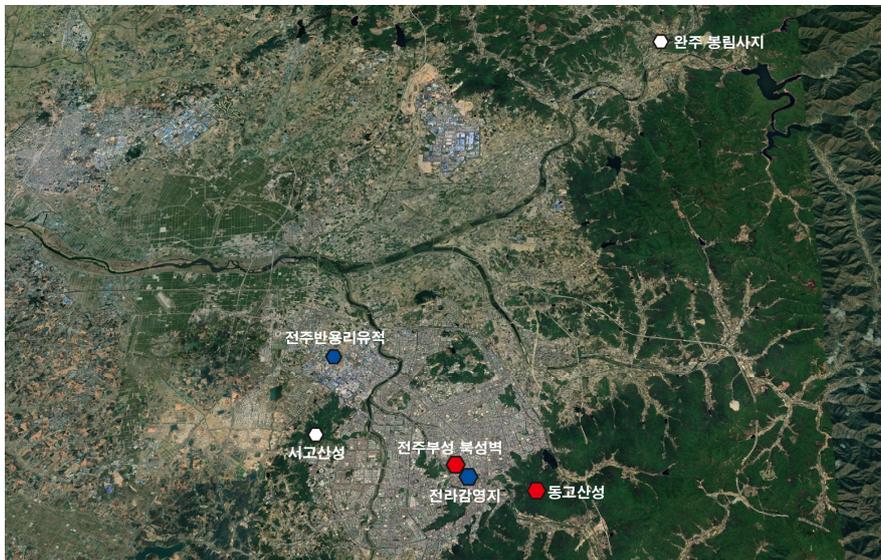


그림 11. 기와를 통해 본 후백제 중심유적(출처: 구글어스)

5. 맺음말

후백제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최소 37년 이상 존속했던 국가이지만, 고고학적으로 그 실체를 찾아내는 과정은 아직 더디기만 하다. 이 글에서는 후백제 고고학의 연구현황과 쟁점을 알아보고 향후 과제 중 일부를 살펴보았다. ‘全州城’, ‘王’, ‘國’ 등의 기와는 9세기 중반에서 10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되었는데, 공반된 문양과 단어가 지닌 의미를 더하여 후백제의 표상적 유물로 판단하였다.

우리의 지나간 긴 역사에서 37년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원대한 야심을 지니고 건국한 후백제가 존속한 900년부터 936년 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후백제에 의해 조성된 건물과 ‘제작-사용-폐기’된 유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나, 아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도 후백제의 표상적 유물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하며, 본고에서 언급한 기와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후백제 고고학을 위하여 도성과 관련된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시화로 인해 조사의 제약이 있지만, 발굴조사 없이는 고고학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기회가 생긴다면 소규모라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경우 발굴조사는 비문화층까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선시대 문물에 대한 조사에서 중단한다면, 하층에 존재할 수 있는 후백제의 유산은 영영 우리 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역사 고고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왕성, 사찰, 왕릉 및 고분, 주거지, 성곽 그리고 유물 등에서 후백제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아직 출발하지 못한 분야도 있는데,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

논문접수일: 2021. 11. 01. / 심사개시일: 2021. 11. 16. / 게재확정일: 2021. 11. 19.

참고문헌

- 곽장근, 2013, 「진안고원 초기청자의 등장배경 연구」, 『전북사학』 42호, 107-136쪽.
- 곽장근, 2018, 「후백제 고도 전주와 외곽 방어체계」,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 호남고고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 국립전주박물관, 2016, 『후백제 도성벽 조사보고서』.
- 국립전주박물관, 2017, 『전주 풍남동 후백제 도성 추정지 발굴조사 보고서』.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9, 『진안 도통리 중평 초기청자요지Ⅲ』.
- 김주성, 2014, 「후백제의 왕궁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74호, 79-105쪽.
- 서정석, 2010, 「산성에서 발견된 석벽건물의 성격에 대한 시고」, 『백제문화』 42권, 145-173쪽.
- 서정석, 2017, 「통일신라기 주 치소성의 구조와 물자유통-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6권, 53-80쪽.
- 엄원식, 2020, 「문경·상주지역에 남아있는 견훤의 흔적들」,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 국립전주박물관.
- 이종민, 2003,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종민, 2017, 「나말여초 청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 『한국중세고고학』 1호, 55-84쪽.
- 전북대학교박물관, 2020, 『완주 봉림사지Ⅱ』.
- 전상학 2021, 「후백제 문화유산 발굴조사 성과」, 『후백제 왕도 전주 바로 알리기』, 후백제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전영래 1997, 『전주 동고산성(1,2차)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전용호, 2015, 「익산 왕궁리유적의 사찰 운영에 대한 재검토-왕동탑 하부 유구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0권, 51-92쪽.
- 조명일, 2018, 「후백제 산성 출토유물 검토」,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 호남고고학회.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1, 『고창 반암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진정환, 2019, 「후백제 불교미술품과 고고자료의 검토」, 『호남고고학보』 61권,

108-130쪽.

차인국, 2020a, 「완주 봉림사지 기와의 변천과 후백제」, 『호남고고학보』 64권, 52-75쪽.

차인국, 2020b, 「후백제 기와의 종류와 사용방식」,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 국립전주박물관.

최인선, 2018, 「전남지역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성」,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 호남고고학회.

최홍선, 2020, 「후백제 도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견훤, 새로운 시대를 열다』, 국립전주박물관.

황인호, 2014, 「신라 9주5소경의 도시구조 연구」, 『중앙고고연구』 15호, 105-146쪽.

<Abstract>

Research Status and Subjects of Later Baekje Archaeological

Cha, In-guk*

The post-baekje was a state that had survived for at least 37 years at a time when it was implementing as it was considered in the words of the reunification god. Various material cultures related to the national facilities - dosung, acid, royal tombs, and religion - would have been formed, but the reality is not yet clear. Recently, with the accumulation of the investigative results of the remains of the post-baekje, discussions related to the post-baekje began to take place.

In this article, we will introduce the remains mentioned as related to fubaekje in separated provinces, acids, production sites, temples, and building sites. Next, we looked at the main issues of postbaekje archaeology: Jeonju Donggosan, Gwangyang Marosanseong, Longevity Sedimentation, Hapmisanseong, Jin'an Dotongli CeladonYoji, and Jeonju Castle.

One of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in post-baekje archaeology is the absence of superficial materials that reveal the orthodoxy of the post-baekje, which looked at the relics unique to the anti-baekje for tile, the relics of the former ruling class. As a result, tiles such as “全州城”, “王,” and “國” were produced after the mid-9th century, and were judged to be superficial relics of the post-baekje, adding to the meaning of the conflicting pattern and words.

It was concluded that the early namal women's tile of the Wanju Bonglim Temple, which is called the Fubaekje Royal Non-Reflection, is also associated with the backback agent. Finally, we put together the superficial artifacts of the post-baekje and estimated the central area of Fubaekje near Jeonju and looked at its functions.

Key Words : Later Baekje, Archaeology, Roof tiles with inscriptions, Jeonjuseong (全州城), Wang(王), Gook(國)

* Jos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